

핵병기 폐절 평화도시 선언

세계 영구평화와 안전은 인류 공통의 바라는 바이다.
그 보편적인 바람에도 불구하고 핵군비의 확장은 의연하게
계속 행해지고 있으며 인류는 핵전쟁의 위협에 처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유일의 핵 피해국으로써 핵병기의 무서움,
핵 피해자의 괴로움을 세계에 호소하고
두번 다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참사를 절대적으로
되풀이 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이치카와 (市川) 시민은 생명의 존엄을 깊이 인식하고
국비인 비핵 3원칙이 철저히 실시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핵병기에 관해서도 그 폐절과 군축을 호소하며
영구평화 확립을 위해
여기에 『핵병기 폐절 평화도시』가 되기를 선언한다.

쇼와 (昭和) 59년 11월 15일

이치카와시 (市川市)